

SBS 월화극 '엽기적인 그녀' ... 사극 로맨틱코미디

# 군 입대 주원 "재밌게 보세요"

오연서와 호흡 ... 29일 첫 방영

2001년 동명 인기 영화 모티브

"내일 입대인데 생각보다 기분이 괜찮아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만나면 제 표정을 보고 '좀 웃어'라고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차분하고 편해졌어요."

16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배우 주원(30)이 잠시 팬들과 작별하는 심경을 밝혔다. 주원은 15일 서울 목동 SBS홀에서 열린 SBS TV 새 월화극 '엽기적인 그녀'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을 받았을 때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팬들이 그동안 제가 사극 로맨틱코미디를 하는 것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입대 문제로 촬영장 식구들이 늘 걱정했다고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저도 스태프도 혹시 영장이 바로 나올까 봐 다 같이 노심조사하면서 촬영했어요. 다행히 잘 마쳤고요.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다 보니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주원은 포토타임 때는 거수경례 후 심형탁과 피티(PT)체조를 하며 성실한 군 생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파트너 오연서도 함께 거수경례를 하며 "잘 다녀오라"고 그를 격려했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팬이 입대 전 주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몰렸으며, 쌀 화환도 넘쳤다.

오는 29일 첫 방송하는 '엽기적인 그녀'는 동명의 인기 영화(2001)에서 모티브를 딴 사극으로, '용팔이' 이후 주원이 2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이자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똑똑하지만 까칠한 한양 남자 경우 역할을 맡아 '엽기발랄'한 해명공주 역의 오연서와 호흡을 맞춘다.

주원은 동갑내기 파트너 오연서에 대해 "견우와 해명공주는 '전쟁 같은 사랑'을 한다"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다. 내가 여자한테 맞고도 이렇게 피멍이 들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또 "'엽기적인 그녀'는 팬들에게 제가 없는 동안 빈자리를 채워줄 드라마"라며 "영화와는 내용이 많이 달라 아예 새로운 드라마라 보셔도 무방하다.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원은 함께 KBS 2TV 예능 '해피선데이-1박2일'에 출연했던 선배 배우이자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주인공인 차태현이 응원을 보내온 소식도 전했다. "사실 영화에서 태현 형이 연기한 견우와 제가 맡은 견우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조언을 받을 만한 얘기는 없었지만, 형이 '너와 견우란 인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고 격려해주셨어요."

함께 자리에 참석한 배우 오연서(30)가 드라마 제작 초반 불거진 캐스팅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의 괴로웠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엽기적인 그녀'에서 매사에 영동하고 발랄한 해명공주 역을 맡았다.

오연서는 "캐스팅되기 전 오디션은 한 것도 알고 있었고, 1위 한 분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엽기적인 그녀' 제작사는 제작 초기 단독으로 여주인공 오디션을 진행해 배우 김주현이 낙점됐지만, SBS가 평가 기준을 문제로 삼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결국 오연서가 캐스팅됐다.

오연서는 "논란이 있었던 당시에 바로 해명하고 싶었지만, 영화 '국가대표2' 홍보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야 말씀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된 자신의 캐릭터 해명공주에 대해 애정을 가득 담아 소개했다.

"공주이긴 한데 매일 술 먹고 월담하고 폭력과 욕을 일삼는 엽기적인 공주예요. 그래도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 편에 서주려 하는 정의로운 인물이지요. 드라마에서 해명공주의 반전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해명이 왜 그렇게 엽기적인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오니 재밌게 봐주세요."

그는 또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주인공 정지현과 자신을 비교하는 목소리에 대해 부담감을 솔직히 드러내면서도 "다른 색깔"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연서는 "전지현 선배님이 연기한 '그녀' 역할을 맡은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연기하는 '그녀'는 전지현 선배님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엽기적인 것 같다"며 웃었다.

주원과 오연서 외에 씨얼블루 이정신과 김윤혜가 상스러운 춘춘연애 사극을 꾸민다. 손창민, 조희봉, 장영남, 정웅인, 심형탁 등도 출연한다.

'깃속말' 후속으로 29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37년의 비밀, 트라우마의 유전'

# 5·18 특집 다큐멘터리 방영

내일 광주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37년의 비밀, 트라우마의 유전' (기획 김미영, 연출 안영주·노형진)(사진)을 방송한다.

2부작으로 구성된 '37년의 비밀, 트라우마의 유전'은 대물림되는 5·18 트라우마에 대한 해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다. 미국과 국내 취재를 통해 밝혀진 '트라우마의 유전'에 대한 사례와 연구과정, 그리고 치유 방안 등을 소개한다.

1부 '대물림 되는 공포의 기억, 트라우마'는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에 유전됨을 증명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조명한다. 트라우마의 유전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을 살펴본다.

2부 '대물림 되는 5.18의 기억, 그 치유의 길을 모색하다' 편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



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자녀들의 사례와 치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한국전파진흥협회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37년의 비밀, 트라우마 유전'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한국어로, 오후 7시에는 영어로 60분간 방송(광주 FM98.7Mhz/ 여수 FM93.7Mhz)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성유리, 프로골퍼 안성현과 결혼

4년간 열애 ... 예식비 전액 기부

배우 성유리(36·오른쪽)가 동갑내기 프로골퍼 안성현과 4년 열애 끝에 부부가 됐다.

성유리의 소속사 에스엘이엔티는 16일 "4년 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성유리와 안성현이 지난 15일 직계 가족들과 가정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며 "예식 비용은 전액 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며,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두 사람의 뜻에 따라 결혼 소식을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도 공개했다. 성유리는 레이스와 프릴로 장식된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안성현은 보타이를 매치한 예복을 입었다.

성유리는 1998년 그룹 핑클로 데뷔해 연가사로 전향했으며 가장 최근 작품은 지난해 방송한 MBC TV 드라마 '몬스터'이다. /연합뉴스



그는 결혼 후에도 배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안성현은 2005년부터 프로골퍼 생활을 했으며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홍창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가정의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5.18특집다큐 (윤비의 오월통신)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가정의달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수목드라마 (군주)(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가정의달 특선 3부작 초저출산시대, 아이가 희망이다 50 감성툰 고맙습니다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군주)(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kbc청사특집다큐 (사람사는 마음, 양림동)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우리말 겨루기 (재)	00 속보이벤트 TV 인사이트(재)	3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55 닥터 365
2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구리가식사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5 가정의달 특선 명견만리 -탈출, 인구절벽 3부작 (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골짜기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군주)	00 드라마 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40 글로벌 앵커 찾아 삼만리(재)	15:20 마사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5천년 공존 인도네시아 물소)	10:30 한국기행	15:35 모피와 친구들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홈메이드 케첩, 연어커레 발전)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07:00 플라워링 하트(I)	12:00 EBS 정오 뉴스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땀방울 유치원 1~2(재)
07:45 출동! 슈퍼웬스	12:40 지식채널 e	17:1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2:45 EBS초대석(재)	17:30 로보가 폴리
08:30 똑딱맨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동굴과 열정 그리고 자기 성찰2)	17:45 똑딱맨(재)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5:00 그림을 그려요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09:15 영마 깨트리(재)	15:05 두기탐험대	19:30 EBS 뉴스
09:30 물랑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조혈세포도 이식 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7일 (음 4월 22일 甲寅)	
子	48년생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나 의외적으로 임해도 된다. 60년생 주저한다면 실기하는 길로 이어질 것임에 뵈다. 72년생 빠른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5, 01	午	42년생 기회가 온다. 54년생 관심 있게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리라. 66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78년생 막혔던 바가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90년생 뜻밖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74, 19
丑	49년생 거두어들이는 결과물의 수량이 늘어나는 풍요로움이 보인다. 61년생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73년생 이룬과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자. 85년생 정중동의 형태가 합리적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8, 69	未	43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강구하라. 55년생 감쪽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67년생 현황에 맞게 대응하고 모색하라. 79년생 중박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91년생 기민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10, 96
寅	50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62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의문스러운 점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결함이 있다. 74년생 유지하라. 86년생 남은 좋지만 정작 주인공은 실속이 없었다. 행운의 숫자 : 84, 60	申	44년생 지금 손질함이 가장 나올 것이다. 56년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니 만전을 기해야겠다. 68년생 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낫다. 80년생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1, 81
卯	51년생 겉으로는 참으로 보기 좋겠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63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실은 양호하리라. 75년생 듣는 이가 많아서 유리한 국면을 점하게 되리라. 87년생 순조로운 진행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4, 51	酉	45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복잡해진다. 57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69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선했을 수 있는 관계이다. 행운의 숫자 : 43, 54
辰	52년생 형식에 지나치다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게 된다. 64년생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사가 순행하리라. 76년생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88년생 중용의 입장과 균형 잡힌 처세가 필수적이다. 행운의 숫자 : 60, 37	戌	46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58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이 평안할 것이다. 70년생 똑같은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82년생 기존의 것에 신중한 요소가 가미되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09, 77
巳	53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하게 된다. 65년생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서 조심스런 행동을 해야겠다. 77년생 너무 거친 상태이니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89년생 상대는 몇 수 앞 서고 있는 고수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9, 10	亥	47년생 필연적이나 각고의 노력을 요한다. 59년생 상호 관련되면서 의존하게 되리라. 71년생 오히려 인한 갈등이나 의심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83년생 두 번 다시는 만나기 힘든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1, 9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